

TEE Times 티 타임즈

발행인 한순진 | 편집인 최윙

등글레 칼럼/ 가정 사역의 가능성을 엿보다!

묵상/ 구원이란 : 임홍일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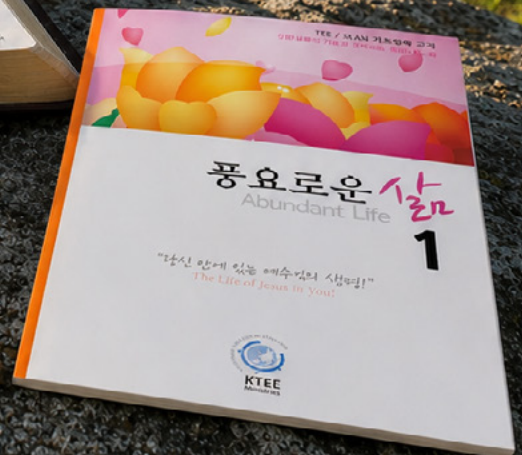
인터뷰/ 명광교회 임준목사

상승교회 김경수목사

리뷰/ "습관이 영성이다" (제임스 스미스 저)

소식/ KTEE 업데이트 및 계발 안내

새해 하반기 사역 일정



한국교회 가정 사역의 가능성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되다

MK NEST, 동지가족캠프에서 ‘아이 월’ 주 도구로 사용

나는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MK NEST(대표 최용목사) 주최, 대전 외국인학교(TCIS)에서 열린 [동지 선교사 가족캠프]의 부모부서 메신저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 캠프는 엠케이 네스트가 매해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캠프로 개최해 오고 있는데, 그 중 4년에 한 번은 가족 캠프로 열리고 있다. 매 캠프에서는 TEE 풍요로운 삶을 비롯해서 여러 과정들이 주제에 따라 사용되었는데, 이번 가족 캠프에서는 KTEE가 가정에 초점을 두고 준비한 [아이 월 I Will] 성경공부가 주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번 가족 캠프는 28개국 20여 가정과 캠프를 섬기는 스텝 40여 명이 참가하였다. 선교사들은 “아이 월은 훌륭한 성경공부이자 프로그램입니다”고들 입을 모았다.

P선교사는 “캠프를 통해 많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어머니의 역할과 아내의

자리와 가정의 소중함을 배우며 공부한 귀한 시간이었다”며 “아이 월!”로 다짐을 했다. 나그네 명을 사용하는 선교사는 “이제 꿈같던 캠프에서 현실로 돌아 갑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행복한 추억이 있기에 현실에서도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반응했다. 아프리카의 C국에서 온 선교사도 “아침 식사 전의 경건회와 오전의 예배와 메시지, 그리고 영상 클립을 보고, 소그룹 나눔을 가지는 과정들이 통일성 있으면서 점진적으로 아이 월의 목표를 향하도록 하는 인상을 받았다”며 “차분하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메신저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고, 메시지와 관련한 비주얼 영상 자료도 훌륭했다”고 격려하였다.

아이 월은 캠페인 성격을 띤 훈련 도구이다. 이 교재는 구약의 여호수아서와 미 조지아주에 소재한 셔우드침례교회에서 만든 감동적인 기독교 영화 ‘커리



▲ 대전 외국인학교(TCIS)에서 열린 MK NEST 주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선교사 동지 가족 캠프 참가자들

저스, Courageous (한국판 제목 ‘용기와 구원’)에 기초하여 4주간 동안 가정을 일으키기자는 목적으로 KTEE가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으며, 이번 캠프를 비롯, MK NEST 선교사 가족 행사에서 이미 몇 차례 임상을 가져왔다.

이번 선교사 가족 캠프를 통해 나는 [아이 월] 성경공부가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대로 가정을 일으키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확신을 가졌다.

MK NEST의 대표이며 KTEE 미니스트리의 한국 코디네이터를 맡아 동역자로 섬기고 있는 최용목사는 “이제는 한국교회가 날로 피폐해지고 있는 현대의 가정들을 쓰다듬어주고 치유해 줄 때가 되었다”며 “KTEE의 아이 월 과정이 그

대안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확신 있게 제안한다. 최목사는 널리 알려진 캠프 전문가이자 캠프 분야의 전공자이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나는 그의 제안에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KTEE는 지역교회가 필요성을 동감하면서도 다루기를 꺼려하는 가정사역을 돕기 위해 먼저 목회자들이 ‘아이 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아이 월 지도자 캠프]를 가지려고 한다. 이 캠프는 일년에 한 두 차례 계획하고 있으며, 일일 세미나도 열릴 계획이다.

나는 TEE를 시행하고 있는 KTEE의 Extension Center 교회들이 먼저 시도해 볼 것을 권장한다. 이 일은 어렵지 않고, 거창하지 않다. 지역교회에서 언제든지 일정을 정하여 즐겁게 영화를 보



▲ 캠프의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경건회에서 ‘아이 월’ 성경공부로 말씀 나눔을 하고 있다. 동지 가족 캠프 참가자들

고 그 감동을 이어가도록 4차례의 설교와 성경공부를 하게 된다. 그것 만으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거기 다가 캠프 프로그램이 더해지게 되면 효과는 증대될 것이다.

‘아이 월’의 출처는 여호수아서에서 비롯된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시작될 때부터 그의 리더십이 다해 갈 때, 백성들이 그에게 이렇게 응답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도 가리이다, “We will do...we will go (수 1:16) 우리가 행할 것이다, 우리가 갈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임종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

이다, We will serve the LORD (24:1)”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 월’ 했던 것처럼 우리 개개인이 “아이 월” 결심을 하자는 뜻에서 붙여진 주제이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위 월 We will” 해야 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위해 “아이 월 I will”로 나아가야 한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한순진 | 디렉터



▲ 가족 캠프 중에는 자녀들이 지켜보며 축하하는 가운데 앵콜 웨딩도 열렸다.



- ▲ 캠프 일과 중 메시지를 들은 후 관련 영상 클립을 보고 그룹별로 모여 '아이 윌' 적용 부분의 워크샵 나눔을 하고 있다.

선교사 가정의 회복을 위해 함께해 주십시오

이번 동지가족캠프에서 부모선교사와 MK들은 함께 예배하고 배우며, 서로를 하나님의 선물로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윌(I WILL)』을 중심으로 진행된 말씀과 가족 프로그램은 지친 선교사 가정에 위로와 회복을 전했습니다. 한순진 목사는 부모부서 주강사로 참여해 네 차례의 설교와 주례 설교로 섬겼습니다.

'선교사 가정'은 선교의 중요한 토대이지만, 사역 현장에서는 정작 충분한 돌봄과 회복의 기회를 얻기 어렵습니다. 동지가족캠프는 선교사와 자녀들이 잠시 사역의 부담을 내려놓고 건강한 가정과 사역을 이어갈 힘을 얻도록 돕는 자리입니다.

이 사역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기도와 동역이 필요합니다. 캠프에 참여한 가정들이 선교지로 돌아간 뒤에도 배운 말씀을 삶에서 이어가도록, 선교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더 많은 선교사 가정에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보내 주시는 후원은 동지가족캠프와 선교사 가정 및 자녀들을 돌보는 지속적인 사역을 위해 사용됩니다. MK와 그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은 한 선교지를 지키고 다음 세대의 선교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후원 및 동역 문의 02-2653-3519 / mkcamp@mknest.org

[계좌 : 국민 503237-01-002432 (사)한국해외선교회(MK)]

묵상 / 골로새서 3장 16절

구원이란?



임홍일목사

| 미주 코디네이터, 비전선교교회 담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분을 왕과 스승으로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시던 수난기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 한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부자 관원: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부자 관원: “저는 그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아직도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떠난 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뜻밖의 말씀에 크게 놀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대화에는 구원을 나타내는 여러 표현이 등장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생명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구원받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의 구원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보여 줍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에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죽은 뒤에 시작되는 끝없는 삶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지금부터 누리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예

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요 17:3)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에 관한 정보를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결혼과도 같습니다. 결혼하면 법적인 신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깊이 알아 가고 함께 살아가면서 두 사람 모두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 가고, 깨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생명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구원받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의 구원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보여 줍니다.

어진 삶을 새롭게 회복해 갑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은 미래에 받을 보상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어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할 생명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원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라는 초대 앞에서는 돌아섰습니다. 이 장면은 영원한 생명과 제자의 삶을 분리할 수 없음을 보여 줍니다. 구원은 단지 종교적 자격이나 죽은 뒤의 안전을 얻는 일이 아닙니다. 삶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 드

리고, 그분을 주님이자 스승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는 돈과 소유, 관계와 성공, 용서와 사랑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과 욕망, 습관과 행동은 조금씩 새로워지며 스승인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지 죽은 뒤에 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원한 생명은 죽은 뒤에 시작되는
끝없는 삶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지금부터 누리는, 하나님에게서 오
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단순히 국경을 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나라의 법과 질서, 문화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가치와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 갈 때, 그 나라는 일상 속에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백성답게 살며, 장차 완성될 새 창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 스승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구원은 죄와 악과 죽음의 권세에서 건짐받고, 병들고 깨어진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생명과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을 믿을 때 시작되어 지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온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실 때 완성됩니다.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아 가고 있으며, 마침내 온전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는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이시며, 우리가 따르고 배워야 할 스승이십니다.



EXTENSION CENTER INTERVIEW

인터뷰 1 / 명광교회 임준 목사

교회의 토양에 맞는 훈련, TEE

TEE와 함께 선교적 교회를 꿈꾸며 전통교회의 체질을 바꾸어 가는 여정!



“교재가 교사이고 우리는 돕는다면,
누구라도 함께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적 교회를 품고, 전통교회로

저는 명광교회에 부임한 지 올해로 4년째입니다.
명광교회는 54년의 역사를 지닌 교회로, 예배와
대심방 중심의 전통적인 목회 방식에 익숙했습니다.

별도의 소그룹 모임이나 제자훈련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부임한 뒤
기존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교회 안에 조금씩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
TEE를 접목해 나갔습니다.

명광교회에 오기 전에는 세종에서 ‘한몸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미국 풀러에서 공부
하며 ‘선교적 교회’를 접했고, 미주 지역의 다양한 교회를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는

교회를 이렇게 세워 갈 수도 있구나” 하는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성도를 단지 교회 안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도록 돕는 교회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국에 돌아와 교회를 개척했지만, 이후 하나님께서는 저를 명광교회로 이끄셨습니다. 처음에는 “왜 저를 다시 전통교회로 보내십니까?”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명광교회의 체질을 바꾸어 가는 일에 저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그 쓰임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TEE와의 첫 만남, ‘교재가 교사’라는 발견

제가 TEE를 처음 알게 된 것은 2012년 경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선배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좋은 교재라며 《풍요로운 삶》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후 포항에서 부사역자로 섬길 때 TEE를 본격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당시 그 교회는 소그룹과 제자훈련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반면, 기독교적 배경이 없는 새가족이 들어왔을 때, 신앙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도록 돕는 과정에는 아쉬움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교재를 찾던 중 TEE를 다시 살펴보게 되었고, 지구촌교회에서 열린 세미나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훈련을 받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교재가 교사이고, 인도자는 돕는 사람”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저는 교재는 가르치는 사람을 보조하는 도구이며, 결국 교육의 성패는 교사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TEE에서는 참여자가 교재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인도자는 그 배움이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다는 그 방식이 무척 좋았습니다.

저는 당시까지 한국에 나온 대부분의 제자훈련 교재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훈련을 받은 성도들도 막상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할 때면 “나는 아직 부족하다”며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하는 부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훈련이 다른 사람에게 재생산되지 못하고, 다음 과정도 다시 목회자가 맡아야 하는 구조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재가 교사의 역할을 하고 인도가 참여자들의 배움을 돕고 격려하는 구조라면, 일반 성도도 다른 사람의 성장을 충분히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라면 교육이 한 사람의 역량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되며 확장될 수 있겠다는 생



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풍요로운 삶》과 《풍요로운 빛》을 기초 과정 삼아 운영했습니다. 저도 직접 모임을 인도했고, 그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인도자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TEE의 교육 방식과 가능성이 제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설교와 사랑방으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다

명광교회에 부임하고 바로 ‘선교적 교회’를 강조하거나 TEE를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첫 해에는 기존 시스템을 최대한 지켜가면서 먼저 설교를 통해 교회의 방향을 새롭게 나누는데 집중했습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성도가 일상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 전했습니다.

그리고 2년 차에 교회가 안정이 되고 나서 기존의 구역 모임을 ‘사랑방’으로 바

꾸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은사와 필요를 중심으로 좀 더 적극적인 삶이 나눠지는 소그룹 모임이 이루어지게 한 거죠. 그림을 그리는 사랑방, 바느질 사랑방, 종이접기 사랑방, 어른신들 맛집탐방 사랑방... 취미를 함께 즐기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소그룹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좀 더 적극적이고 성도들의 삶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가면서 TEE를 접목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쉬운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사랑방을 통해 관계의 흐름을 바꾸었다면, 그 안을 말씀으로 단단하게 세울 양육 과정도 필요했습니다.

명광교회에서 1년 반 정도 성도님들을 만나며 내린 결론은 “우리 교회의 훈련은 무조건 쉬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는 어른신이 많고, 충분히 배



을 기회를 얻지 못해 글을 읽고 쓰는 일을 어려워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제자훈련을 처음 접하는 직분자들도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과정이어야 했습니다. TEE 교재는 참여자가 스스로 읽고 문제를 풀어 가며 반복해서 내용을 익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신학 용어를 많이 알아야 시작할 수 있는 과정도 아닙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반복되고, 배운 것이 머릿속에 정리됩니다.

또 오래 신앙생활을 한 장로나 권사에게는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일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TEE 교재는 본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님들에게는 하나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교재가 쉽고,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답도 교재 안에 있습니다”라고 설명하자 표정이 편안해지고 진입 장벽이 낮



아졌습니다.

배움은 많이 아는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기초 과정은 모르는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TEE는 서로 다른 신앙 연륜과 학습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낮추고 시작할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작게, 자원하는 사람부터 시작하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을 동원하려 하지는 않았습니 다. 교회에 제자훈련이 필요하다고 선포한 뒤 게시판에 신청서를 두고, 자원하는 분들이 직접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몇 분에게 참여를 권하기도 했지만 억지로 시작하게 하지는 않았습니 다.

무엇이든 작게 시작해 좋은 경험을 만들고, 그 경험이 다음 사람에게 전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억지로 참여한 사람이 중간에 좋지 않은 평가를 하면 다음 그룹을 이어 가기 어려울 수 있지만, 기대를 가지고 자원한 사람이



▲ 예배 중 수료식을 진행하면서, 간증을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좋은 경험을 하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길이 열립니다.

첫 그룹에는 열두세 명 정도가 신청했습니다. 장로님 부부와 권사님, 집사님 등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직분자들이 먼저 참여했습니다. “기초를 왜 다시 배워야 하나”라며 거부하기보다 기대를 가지고 들어와 주셨습니다.

저는 첫 모임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은 흠어져 있는 내용을 모아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뼈대가 튼튼해야 그 위에 더 높이 쌓을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은 신앙의 기본을 전반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평소에는 꺼내기 어려운 주제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주일예배를 왜 드리는지, 헌금은 왜 하는지와 같은 질문을 교재가 먼저 던져 주니 직분자들과도 부담 없이 이야기

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은 서로 연결됐고, 잘못 이해하고 있던 부분은 성경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됐습니다.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의 결을 갖게 된 것이 감사했습니다.

성도들이 만든 좋은 소문

첫 그룹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전통적으로 해 오던 일의 의미를 성경을 통해 다시 발견하니 배우는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말씀을 중심으로 깊이 소통하면서 관계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일이 어려워도 꼭 훈련을 받고 싶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성도가 주중에 함께 교재를 읽고 답을 쓰며 예습을 도왔고, 그분은 세 권을 모두 마쳤습니다. 간증을 길게 쓰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깨달은 내용을 세 줄로 적어

읽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습니다.

“나는 잘 모르고 교회에 처음 나왔다”고 말씀하시던 어르신 두 분도 참여했습니다. 한 권사님이 자신은 그 기수의 정식 참여자가 아니면서도 주중마다 두 분의 예배를 도왔습니다. 두 분 모두 과정을 잘 마쳤고, 한 분은 “내가 이 교회에 온 것도, 이 교육을 받은 것도 정말 잘한 일”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TEE의 학습 방식뿐 아니라 서로의 배움을 돕는 공동체가 함께 작동한 것입니다.

첫 그룹에 참여한 분들은 주변 성도들에게 “정말 좋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좋은 소문이 다음 기수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봄과 가을에 과정을 열고, 한 기수는 주중에, 다음 기수는 주일에 진행되는 방식으로 교회의 다른 모임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40명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주일 평균 출석이 약 200명인 교회에서 제자훈련의 저변이 조금씩 형성된 것입니다.

TEE를 통해 성도들 안에 기본적인 신앙의 틀이 잡혔고,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나눌 때 목회적인 공감도 깊어졌습니다. “나도 더 배워야 한다”는 분위기가 생겼고, 먼저 배운 분들이 다음 사람의 참여를 돕는 동역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와 TEE가 만나는 지점

제가 이해하는 선교적 교회는 교회 안의 프로그램을 늘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로 살아가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이 방향에서 보면 사랑방과 TEE는 서로 떨어진 두 사역이 아닙니다. 사랑방은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와 관계를 통해 이웃을 섬기는 자리이고, TEE는 그 삶을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며 누구나 배움과 돌봄에 참여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TEE의 강점은 위에서 아래로 지식을 전달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참여자가 스스로 배우고, 인도자는 그 배움을 돕습니다. 교역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구조를 넘어 평신도가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런 수평적인 배움과 리더십의 방식은 각 사람의 은사를 깨우고 소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돕는 선교적 교회의 방향과 잘 맞습니다.

명광교회의 현재 상황에도 적합했습니다. 제자훈련의 경험이 없는 전통교회에서 누구나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쉽고, 나이와 배움의 차이가 있는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한 번 시작한 훈련을 다음 기수로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재가 중심을 잡아 주기 때문에 인도자의 역량에만 의존하지 않고 리더를 넓혀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TEE가 선교적 교회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방향을 분명히 세우고, 성도들이 그 방향을 자신의 삶에서 살아가도록 돕고자 할 때 TEE는 매우 실제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명광교회에서는 설교로 방향을 나누고, 사랑방으로 관계와 섬김의 자리를 만들고, TEE로 그 안에 말씀의 기초와 지속 가능한 양육 구조를 세워 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양육의 다음 단계로

현재까지는 《풍요로운 삶》을 통해 교회 안에 훈련받은 사람의 저변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1단계를 마친 소수만 곧바로 다음 과정으로 데리고 가기보다, 먼저 여러 기수를 운영해 함께 훈련받은 사람을 충분히 세우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그 가운데 다음 단계로 나아갈 분들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세퍼드라이프》를 통해 사랑방 리더들이 교회의 목회 철학과 하나님의 마음에 더 깊이 동참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끌도록 돕고 싶습니다. 새가족이 신앙의 기초를 배우고,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 리더로 세워지며, 다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랑방도 지역과 교회를 잇는 징검다리로서 더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점에서 열린 소그룹을 통해 외부인이 함께 와도 편안하게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인카운터》 같은 과정도 활용해 보고 싶습니다.

전통교회가 새로운 교회의 형식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새로운 유행이라기보다 교회의 본질을 다시 묻는 일입니다. 전통 교회에는 전통교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토양과 소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묻고, 그 소명에 맞는 사람과 구조를 세워 가는 것입니다.

명광교회는 지금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TEE는 이 교회의 토양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배우고, 서로를 돕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연결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 소감문들 | 일부 발췌문입니다.

- “내 안에 주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내가 할 수 없던 것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 김*영 집사
- “비록 작고 부족할지라도 힘을 다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 이*임 권사
- “깨달은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웃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김*희 집사
-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조*숙 집사
-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 기도가 회복되어 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영 권사
-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불완전한 삶에서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 이*아 권사
-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 이*아 권사
-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따끈따끈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 신*상 권사
- “최소한의 양심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던 제게 성령께서 거룩한 부담을 주셔서 저를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 김*하 집사
- “제자훈련은 주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실행하며 살아가는 제 신앙생활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 김*하 집사
- “말씀을 배우면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라는 구원의 감격이 있었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 최*임 권사
-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가르침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가슴 벅찼습니다.” / 박*순 성도
-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붙들어 주셨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 임*주 집사
- “풍요로운 삶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최우선 순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임*순 권사
- “참된 풍요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삶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정*석 안수집사
-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결과보다 순종을 선택하며, 소유보다 맡겨진 청지기로 살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 정*석 안수집사

EXTENSION CENTER INTERVIEW

인터뷰 2 / 상승행복교회 김경수 목사

군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병사와 간부를 말씀으로 세우는 김경수 목사의 TEE 사역



김경수 목사는 2000년 이화여대 앞에 비전교회를 개척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소그룹 성경공부 사역을 해왔다. 2018년에는 문을 닫았던 경기도 파주 적성의 중앙상승교회를 다시 세우며 군선교를 시작했다. 공식 은퇴 후에도 군선교 현장을 떠나지 않고 병사와 간부, 군인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끊임없이 구성원이 바뀌는 군 현장에서 김 목사는 TEE를 통해 한 사람이 스스로 말씀을 공부하고 삶으로 나누도록 돕고 있다.

“군선교 현장에서는 한 가지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스스로 공부하고 함께 나누는 TEE의 중심은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청년사역에서 군선교 현장으로

저는 미술을 전공하고 상담을 공부한 뒤, 2000년 이화여대 앞에 비전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곳에서 청년들을 상담하고 소그룹으로 성경을 가르치며 오랫동안 사역했습니다.

군선교는 한 군인을 상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강원도 화천의 한 군부대를 찾아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서울에서 화천까지 오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 과

정에서 군복을 입은 청년들을 향한 마음
이제 안에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파주 적성에 있는 중
양상승교회를 소개받았습니다. 교회는
이미 폐쇄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지붕과 천장이 낡고 비가 오면 물이 들어
와 더 이상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형편이
었습니다. 저는 미술을 공부하며 익힌 감
각과 비전교회를 여러 차례 손수 고쳐 온
경험을 살려 교회를 다시 단장했습니다.
열흘 동안의 공사를 거쳐 2018년 7월
15일 헌당예배를 드렸고, 그때부터 본
격적인 군선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토요일에는 병사들과 성경을 공부하고
주일에는 예배와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병사들을 만나고, 신병들
에게는 상담 프로그램과 MBTI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군선교를 시작한
지 어느덧 9년째가 되었습니다. 만 65세
에 공식적으로 은퇴했지만, 하나님께서
군선교의 자리를 계속 맡기고 계신다고
믿어 지금도 부대를 오가며 사역하고 있
습니다.

TEE와의 첫 만남

저는 오래전에 TEE를 배워본 적이 있습
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여건상 사역에 접
목하지는 못하고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
던 중 저의 사역을 잘 아시던 광성교회

남광현 목사님이 TEE를 다시 한 번 소개
해 주었습니다. 그 때 다시 한 번 교재를
살펴본 뒤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했고, 곧
바로 군교회에서 사용할 교재를 주문했
습니다.

TEE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먼저 개인이
교재를 공부하고, 모였을 때 인도자와 함
께 질문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단순히 강
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신
의 생각과 삶을 돌아보게 한다는 점이 좋
았습니다.

군선교 현장은 일반교회와 상황이 다른
니다. 병사들은 훈련과 부대 일정에 따라
움직이고, 휴가와 전출·전역으로 구성
원이 계속 바뀝니다. 정해진 시간에 같은
사람들이 꾸준히 모이는 소그룹을 만들
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TEE의 원형
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군의 상황에 맞
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병사들에게는 짧고 반복적으로

처음에는 군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병사
들에게 《풍요로운 삶》 교재를 나누어 주
었습니다. 한 주에 한 단원씩 공부해 오
도록 하고, 주일 설교 전에 해당 단원의
복습 질문을 화면에 띄워 함께 확인했습
니다. 질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설명한 뒤
설교로 이어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는 주제에 대해 대화를 하면서 모임을 진



▲ 간부와 가족들을 위한 풍요로운삶 모임. 준비한 수료증 하나가 그들에게 큰 격려가 된다.

행했습니다.

모든 병사가 매주 교재를 충실하게 공부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부한 병사는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고, 공부하지 못한 병사도 설명을 들으며 말씀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교재를 성실하게 마친 병사들에게는 작은 선물도 주었습니다. 당시 6~7 정도가 과정을 끝까지 충실하게 마쳤습니다.

한 병사에게 교재를 공부한 소감을 물었더니 “조금 반복되는 것 같지만, 알고 있던 내용이 정리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질문에 계속 답을 쓰다 보면 적어둔 가지는 마음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평소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어 보지 못했던 병사에게는 비교적 짧은 교재 한 권을 완주했다는 경험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희망하는 병사에게 교재를 나누어 주고 스스로 공부해 오도록 하고 있습

니다. 답을 작성해 오면 확인해 주고 작은 선물도 줍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앞으로는 예배 후 간식을 먹는 시간을 활용해 좀 더 소그룹 나눔을 많이 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병사들과 정기적인 TEE 소그룹을 운영하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의 일정 안에서 개인 학습과 말씀 나눔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계속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간부와 가족들에게는 깊이 있는 소그룹으로

간부와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성경공부는 2025년 9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주일학교에 참여하는 동안 기다리고 있던 군인 가족들을 대

상으로 말씀을 나누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작은 모임에 TEE를 적용했습니다.

참여자들은 먼저 각자의 교재를 공부하고, 주일 오후에 모여 답을 나누었습니다. 단순히 정답을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자신의 가정과 부대 생활에 연결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에 있는 고민과 상처를 나누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성경공부에 참여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함께 나오기 시작한 가정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불교 신자라고 소개했던 한 간부도 배우자를 따라 성경공부에 참여했습니다. 부대가 바뀌어 멀리 떠난 뒤에도 성경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며 온라인으로 말씀을 배우는 참여자도 있습니다.

현재는 중령인 대대장 네 명과 소령 한 명,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다섯 가정이 매 주일 오후에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병사들과의 사역이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의 기초를 심는 일이라면, 간부와 가족들을 위한 사역은 말씀을 삶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부 한 사람의 신앙과 선택은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가정은 물론이고 함께 근무하는 많은 병사와 부대의 문화에

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들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일은 군선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말씀 앞에 세우는 사역

군교회는 지휘관과 부대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병사들은 입대하고 전역하며, 간부들도 새로운 부대로 이동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인원이나 결과만으로 군선교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 병사가 예배에 나오고, 교재의 한 단원을 공부하고, 한 가정이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군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사람을 만나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병사와 간부, 군인 가족들이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TEE를 군선교 현장에 맞게 적용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싶습니다.

BOOK / 『You Are What You Love』

습관이 영성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이다.”



제임스 K. A. 스미스(James K. A. Smith)의 『You Are What You Love』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책이다. 처음에는 다소 낯설게 들리지만, 책장을 넘길수록 이 명제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얼마나 깊이 설명하는지 깨닫게 된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변하는 것은 더 많은 지식을 얻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교회는 더 좋은 성경공부를 제공하고, 더 많은 설교를 듣게 하며,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 힘을 쏟는다. 그러나 저자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며, 그 사랑은 반복되는 습관을 통해 형성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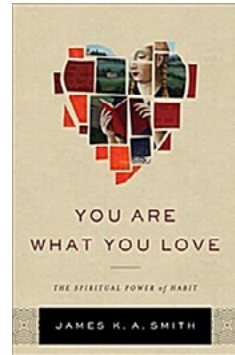
이 책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는가?” “가 아니라 **“당신은 무엇을 사랑하는가?”**이다. 예수님께서도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

음도 있다”(마태복음 6:21)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행동은 결국 가장 깊이 사랑하는 것을 향해 움직인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사랑는지조차 잘 모른다는 데 있다. 저자는 우리의 가장 깊은 사랑은 우리의 습관 속에서 드러난다고 말한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 드는 습관, 틈만 나면 쇼핑물을 찾는 습관, 끊임없이 SNS를 확인하는 습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특정한 방향으로 형성하는 ‘예전(liturgy)’이라는 것이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저자가 현대 문화를 ‘세속적 예배’로 설명하는 대목이다. 그는 쇼핑물을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소비를 통해 행복을 약속하는 현대인의 성전이라고 표현한다. 광고와 미디어, 스포츠와 정치 역시 우리의 욕망을 끊임없이 교육한다. 결국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대체로 지적 활동,
지식 습득의 문제인 것처럼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And yet we often approach discipleship as primarily a didactic endeavor—as if becoming a disciple of Jesus is largely an intellectual project ...” 『You Are What You Love』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며, 문제는 예배를 드리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무엇을 예배하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이 책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교회의 **예배와 제자훈련**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종종 예배를 좋은 설교를 듣는 시간으로 이해하고, 교육을 성경 지식을 배우는 과정으로 여긴다. 그러나 스미스는 예배는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다시 향하게 만드는 영적 훈련이라고 말한다. 찬양과 회개, 기도와 말씀, 성찬과 축도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모든 요소는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 가는 거룩한 습관이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제자훈련은 **새로운 지식을 더하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을 길러 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찰은 오늘날 교회의 교육 사역에도 중요한 도전을 준다. 성도들이 말씀

을 많이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다.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 번의 감동적인 설교보다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순종과 영적 습관**일 수 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삶으로 실천하는 반복은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로 재형성하는 통로가 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예배와 제자훈련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귀한 안내서라 할 만하다.

『You Are What You Love』는 단순히 습관의 중요성을 말하는 자기계발서가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성경과 철학, 그리고 문화 분석을 통해 설득력 있게 풀어낸 신앙 서적이다. 책을 덮고 나면 한 가지 질문이 오래 마음에 남는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신앙의 성숙은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로 바꾸어 가는 여정인지도 모른다.

KTEE 새로운 업데이트 소식

지금까지의 업데이트

KTEE는 단순히 교재만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지역교회의 필요와 요청, 그리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다양한 자료의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최근까지 새롭게 지원하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 세퍼드라이프 인도자용 디지털 자료
- 풍요로운빛 이미지 암송카드
- 풍요로운삶/세퍼드라이프 예비모임 디지털 자료
- 센터교회 인도자 훈련 자료 : 훈련 및 인도자 매뉴얼
- 각 과정별 교재 소개 PPT
- 홈페이지 모바일 지원 개선

인도자 가이드 / 보조자료 업데이트

TEE과정에서 인도자 가이드는 학생용 교재만큼 중요하다. 왜냐하면 학습은 책선생님인 교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학습을 소그룹 안에서 인도자의 안내를 따라 확인하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고 더 깊은 나눔과 배움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반드시 인도자용 가이드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속적인 가이드 관리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KTEE는 대부분의 과정 인도자가이드를 홈페이지에서 PDF로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PDF를 점검하고 수정 보완하고 있다.

가장 최근 새롭게 공급하고 있는 인도자 가이드는 다음과 같다.

- 기도하는삶
- 일플러스
- 영의세계
- 내양을먹이라
- 풍삶키즈



세퍼드라이프 온라인 기말시험

그동안 세퍼드라이프 기말시험은 KTEE 본부에서 제공하는 PDF를 출력하여 그룹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인도가 직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종이 시험은 가장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이며,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그룹 안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권장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그룹원들의 생활환경이 다양해지고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으로도 시험을 치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꾸준히 있었다. 이에 KTEE는 PC와 태블릿, 스마트폰에서 세퍼드라이프 기말시험을 볼 수 있는 온라인 시험 사이트를 개발하여 공개했다.

KTEE 홈페이지 자료실에 안내된 링크로 접속한 뒤 문항에 답하고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점수와

정답을 확인할 수 있다. 시험 결과는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으며, 이를 인도자에게 제출한 뒤 모임에서 틀린 문제와 중요한 내용을 함께 점검할 수 있다.

온라인 시험은 그룹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모임 전에 각자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제출할 수도 있고, 함께 모인 자리에서 동시에 시험을 진행할 수도 있다.

온라인 기말시험은 기존의 종이 시험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으로 종이 시험을 진행하기 어려운 그룹을 위한 또 하나의 선택지이다. 중요한 것은 시험의 방식보다 세퍼드라이프를 통해 배운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그 내용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며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KTEE는 바울서신과 모세오경을 위한 온라인 기말시험 등 앞으로도 교회와 소그룹이 더욱 편리하고 충실하게 말씀훈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다.



세퍼드라이프 온라인 기말시험 안내

이제 세퍼드라이프 기말시험을 PC나 휴대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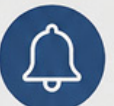
- 1 KTEE 홈페이지 www.ktee.org 일반자료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 2 시험을 마치면 점수가 자동으로 계산되며 시험 결과 및 도움말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 3 결과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여 인도자에게 보내면 됩니다. (문자, 카톡 등)



결과는 사진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KTEE 본부는 시험 결과를 볼 수 없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최적화된
TEE 학습 훈련을 경험하십시오!



TEE 지도자 세미나

26.8.24~25 (월-화) 9:30 ~ 17:00

지구촌교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6
지구촌교회사랑채플



한순진 목사

디렉터, 20여년
교회교육+TEE 사역



김일경 목사

해외 이사장, 15여년 이상
하와이, 베트남 TEE 사역



최용 목사

코디네이터(한국), 20여년
TEE 사역 / MK TEE 양육



임홍일 목사

코디네이터(미국), 20여년
TEE 사역, 미비전선교회

소그룹튜터

김승진 목사 | 총은교회 담임 (전 이랜드, 현 (주)웹티즌 사목)

이현충 목사 | 실무 간사, TEE 교재 개발 및 상담, 워크샵 진행

등록금: 12만원 (세미나 교재 + 점심)

링크를 통해 **세미나 신청 >>**

02.334.3489 | ktee@ktee.org | www.ktee.org

신청하기
QR 링크



TEE 세미나

8월 24-25일 지구촌교회

9월 28-29일 ZOOM

10월 26-27일 지구촌교회

11월 30 - 1일 ZOOM

>> 온라인 세미나는 미주지역과 동시에 진행됩니다.

미주 날씨는 한국 기준으로 하루 전날이 됩니다.

KTEE SCHEDULE

2026 하반기 일정들

하우투프리치 아카데미 (설교 세미나)

일정 논의 중

* 상황 및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역은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신간안내

풍요로운 삶 키즈

초등학교 4학년 ~ 중학교 2학년 수준을

대상으로 한 풍요로운 삶 키즈버전 출시

안내 보러가기>>

Chat GPT에서 TEE를 안내받으세요!

이 이미지를 클릭하거나 좌측하단 QR을 촬영하면 TEE 챗봇으로 이동합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할 수 있지만
늦은 시간 빠르게 질문하고 싶다면
Chat GPT TEE전용 챗봇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